

◆第15課 きぼうを言う—祭り—

제 15 과 희망을 말하다 -마쓰리-

【한국어】

메구미 : “오미코시”, 굉장했지?

사키 : 정말이야. 박력 있었어.

겐타 : 아, 야키소바 먹고 싶다!

겐타 : 어! 버터감자도 먹고 싶네.

사키 : 너하고 오면 꼭 이렇다니까.

메구미 : 어! 솜사탕이다. 먹고 싶다!

겐타 : 솜사탕도 좋지.

사키 : 들고 있니?

사키 : 잠깐만, 잠깐 기다려.

겐타 : 정말 둔한 녀석이야.

사키 : 미안.

겐타 : 어!

